

북한의 인구 자료와 추계

박경숙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북한인구 동태의 퍼즐

- 제한된 발표 자료
-인구구조 및 동태의 전반적인 추이의 이해
- 발표된 자료의 정확성
-자료의 불완전성, 체계적인 편이의 발생메카니즘의 이해
- 경제난 이후 인구동태의 변화
-새로운 조건과 삶의 방식들이 구조화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
- 사회의 특성과 변화모습을 읽어내는 퍼즐 맞추기

연구내용

- 북한 인구 변화의 내적 동학과 그 사회적 연관을 이해
- 이를 위해 북한 인구 자료들의 정확성과 오류메카니즘을 체계적으로 분석
- 기초자료의 보정 작업, 보완적 자료 수집, 분석을 통해 인구 동태를 추정함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 개발

- 발표된 북한인구 자료들의 수집
- 발표자료의 정확성과 완전성의 평가
- 심층자료의 수집과 분석- 새터민, NGO 대표, 연변지역 관련 연구, 활동가와 면접, 2007.2-3월, 2007 6월
- 새터민 설문조사- 2007년 10월 새터민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응답자 이외에도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의 출생, 사망, 출산력을 조사, 각 사례들을 모두 취합하여 인구동태를 분석.

새터민의 북한거주지



북한인구 추계 방법의 검토와 개발

- 1) 사망력 추정 - 발표된 자료의 내적 일관성을 찾아내어 기준 생명표를 적용하여 사망동태를 추정함. 기준 생명표로 권태환, 김태현(1990)의 한국의 생명표와 Coale & Demeny (1966)의 지역별 모형생명표를 참조함.
- 2) 출산력의 추정 - 출산 노출/장애 요인들의 영향을 분석. 발표된 자료 이외 심층면접과 설문조사 결과를 출산률 추정에 연계
- 3) 이동추정 - 이차자료와 심층, 설문 조사 내용 분석의 연계
- 4) 인구추정 - 위의 동태 추이를 기준 인구(1944, 1993년 북한 인구)에 적용하여 1990년대 이후의 인구구조의 변화를 추정

북한인구 자료의 정확성

- 북한인구의 추이

I
<표 3> 북한이 발표한 전체 인구의 변화

| 연도 | 인구 | 성장률 |
|------|-------|-------|
| 2004 | 23612 | |
| 2001 | 23149 | 0.66 |
| 2000 | 22963 | 0.81 |
| 1999 | 22754 | 0.91 |
| 1998 | 22554 | 0.88 |
| 1997 | 22355 | 0.896 |
| 1996 | 22114 | 1.08 |
| 1994 | 21514 | 1.38 |
| 1993 | 21213 | 1.41 |

자료: 조선중앙연감 각연도, DPRK, 1993.

주: 인구 단위는 천명, 성장률은 백분율로 표시됨. 성비는 여성 100에 대한 남성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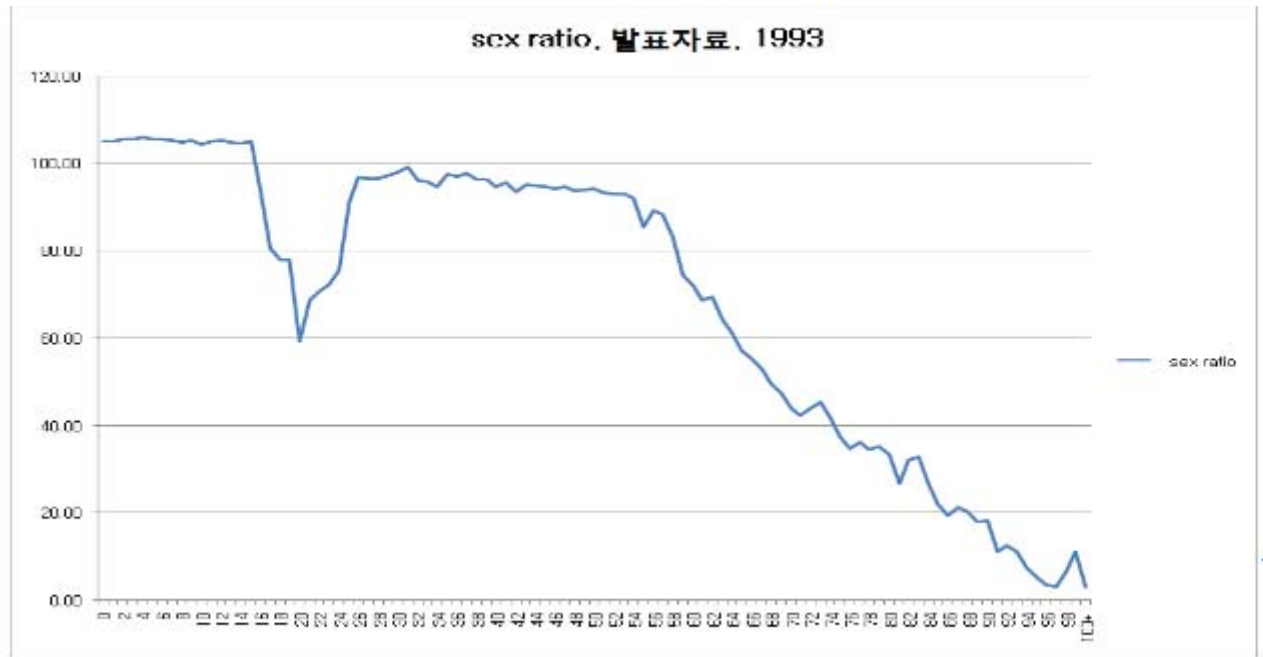
북한인구의 추이-

| 연도 | 인구 | 성장률 | 남 | 성장률 | 여 | 성장률 | 성비 |
|------|-------|-------|------|-------|-------|-------|------|
| 1987 | 19346 | | 8841 | | 10505 | | 84.2 |
| | | 1.49 | | 1.49 | | 1.49 | |
| 1986 | 19060 | | 8710 | | 10350 | | 84.2 |
| | | 1.42 | | 1.19 | | 1.61 | |
| 1985 | 18792 | | 8607 | | 10185 | | 84.5 |
| | | 1.86 | | 1.64 | | 2.04 | |
| 1982 | 17774 | | 8194 | | 9580 | | 85.5 |
| | | 1.36 | | 1.14 | | 1.54 | |
| 1980 | 17298 | | 8009 | | 9289 | | 86.2 |
| | | 1.58 | | 1.49 | | 1.65 | |
| 1975 | 15986 | | 7433 | | 8553 | | 86.9 |
| | | 1.79 | | 0.84 | | 2.65 | |
| 1970 | 14619 | | 7127 | | 7492 | | 95.1 |
| | | 3.28 | | 3.22 | | 3.34 | |
| 1965 | 12408 | | 6067 | | 6341 | | 95.7 |
| | | 2.80 | | 3 | | 2.6 | |
| 1960 | 10789 | | 5222 | | 5567 | | 93.8 |
| | | 3.55 | | 3.86 | | 3.27 | |
| 1956 | 9359 | | 4474 | | 4885 | | 91.6 |
| | | 3.24 | | 3.88 | | 2.67 | |
| 1953 | 8491 | | 3982 | | 4509 | | 88.3 |
| | | -3.13 | | -4.58 | | -1.77 | |
| 1949 | 9622 | | 4782 | | 4840 | | 98.8 |
| | | 1.29 | | 1.08 | | 1.49 | |
| 1946 | 9257 | | 4629 | | 4628 | | 100 |

자료: Eberstadt & Banister, 1990

인구의 체계적 누락- 청년 남성

<그림 1> 북한이 발표한 1993년 연령별 성비구조



청년남성의 체계적 누락 원인;

- 의도적 누락 가설 - Eberstadt & Banister, 1992
- 다른 가설 - 정주인구체제에 기초한 인구집계 구조에서 발생한 오류
- 북한, 인구가동이 엄격히 통제되고 계획된 사회. 체계적이고 통합된 인구통계 관리제도가 취약한 상황에서 전국적인 인구집계가 가능한 것은 이동이 제한된 정주체제이기 때문. 주민등록- 기초생활단위에서의 상시적인 정주인구 관리체제.
- 청년기 남성은 정주인구 관리체제에서 벗어나 집단 거주지에 배치됨. 군대, 사회 건설 동원의 주된 인구.
- 이들 인구가 집계에서 누락된 것은 정주등록 체계 밖에 놓인 유동 인구로서 세밀한 집계가 어렵기 때문에 발생함.

정주인구시스템과 인구배치

- 직업배치
- ...농촌출신은 학교를(고등중학교) 졸업해서 군대를 안 가거나 대학을 안 가면 농장 일을 해야 해요(사례 3).
- ...저는 청진교원대학 학전과를 졸업하고 청진에서 유치원 교사를 했어요, 사무로 보거든요(사례 9).
- ...제대 후 고향에 바로 가는 실례가 드물어요. 왜냐면 북한은, 우리 북한은 막말하면 무리배치, 무리배치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그 말은 부대에서 제대되면 한 개 부대를 통째로 이동하는게 아니고 매 부대마다 몇 명씩 나오는게 있어요. 제대되는 사람들, 그러면은 모아서 어느 탄광이면 탄광지역에 무리를 넣고, 또 광산이면 광산지역에, 백 명이면 백 명 이렇게 무리를 넣는 거예요. 그걸 배치를 해요, 집으로 갈 수가 없죠, 농민들 외에는. 근데 농민들은 되도록 자기 고향으로 보내줘요(사례 15).

성분에 따른 직업배치

- ...부모가 김일성, 김정일 계통에서 일했으면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렇지 못하면 탄광이나 광산, 농장, 일반적인 공장, 그렇지 못한 가족의 아이들은 무조건 군대나 건설공장이나 다 있어요. 평양시 삼석구역이라고 탄광도 있고 공장은 많이 들어가고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항일투사들도 아니고 참전군사도 아니라서 배경이 좋지는 않지만 계속 거기서 원주민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원주민이지만 친일파나 그런 거 없고 김일성에 대해 나쁜 말 안 하면 친일파나 그런 거 없으니까 계속 살게 하지만 자식들은 청소같은 거 하거나 밑바닥 생활해야 해요... 방직이나 재석공장에서 일하는 여자들은 다 지방에서 올라와요. 평양은 부모들이 성분이 좋으니까 평양 여자들이 그런 노동을 안해요(사례 2).

결혼에 따른 정주

- ...처녀들이 시내 공장 직장 남자한테 시집가기가 어려워요. 다만 탄광 광산 군인한테는 시집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서 떠나지 않으면 그 외는 이동이 안 되는 거지요. 남자는 거기서 태어나면 거기서 죽어야죠. 농촌 출신 남자들은 전혀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제대해도 농촌 남자들은 무조건 농촌으로와요(사례 13).
- ...이혼은 힘든데...배우자가 감옥을 갔다든가, 이래서 밖에 있는 사람이 안살겠다 할 때는 그건 좀 빨리 이혼이 되구요. 어지간해서는 갈라지지 말고 끝까지 살라고 하죠(사례 10)

이동, 통행 통제

- 북한에서 다른 지방으로 못 가죠, 공민증이 있어야 되는데 옮기면 공민증에다 기록해요, 보통 정부에서 발령을 받았을 때 가라고 하면 가고 그런 건 허락이 나는 데요 개인적으로는 못가요. 개인적으로는 이동하는 건 없으니까(사례 14).
- ...거주지 이동은 힘들어요. 그니깐 여기서 예를 들면 저기 관악 쪽에 옮직인다 그러면은 우선 지역소, 회사에서 그쪽으로 이동된다는 거 그런거 있어야 되고, 당원이면은 당이동증이 있어야 되고, 직맹이면 직맹이동, 인민반 이동, 또 거주 댈려면 인민반 이동. 뭐 많아요. 이동이 많은 거 같애, 농사꾼들은 이동 같은 거 생각도 못하고(사례 16).

주민등록과 조사

- A. 일년에 한번씩 한다. 보안소 주민등록과에서 해요. 군마다 온성군 행정리에 주민등록과라는게 있습니다. 주민등록원이라는게 있습니다. 다 인민반장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행불이면 적는다. 도강자들이 많이 잡히면 정보가 되니까. 행불이 제일 무섭다. 내가 입당을 한다. 우리 집안안에 행불이 있으면 해명될때까지 입당 못한다.
- 북한은 허위보고가 많다. 행불은 추궁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망으로 들어간다. 꽃제비도 잡히면 다 자기 집결소에 모아놓아서 집이 어디냐, 조사해서 각 지역에 넘긴다. 그래서 사망으로 허위보고를 한다. 그것도 길게 못가고, 300명 소조라는게 있는데 김경희라는 여동생남편이 최고 우두머리인데 그 사람이 통제하니까, 다 조사한다. 검열반이라는게 있는데 중앙열 검열, 등등이 있으니 허위보고 한두번이지 다 조사된다. (사례 7)
- A. 한 2년에 한번씩 할 것이다. 대의원선거가 4년에 한번, 지방선거가 2년에 한번 있다. 주민등록하는 사람 백프로 참가해야 하니까. 정책이 잘 됐다는 선전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거를 해야만 한다. (카운트가 안 되는 인구는?) 쌀구하러 나갔다 행불이라던지 서류가 필요하다. 사유서가 있다.
- * 세 부류의 인구기록, 주민등록인구, 보위부에서 관리하는 수용소 인구, 인민무력부에서 관리하는 군대인구.
- 군인은 인민무력부 총무부에서 관리하고, 사민단체에서 군인수를 관리하지는 않는다. 제대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준다. 17세 이상부터 주민증을 받는다. 군이랑 민간은 관리 대상이 다르다. 군대의 쌀은 민간에서 관리하지 않고, 군대가 관리한다. (사례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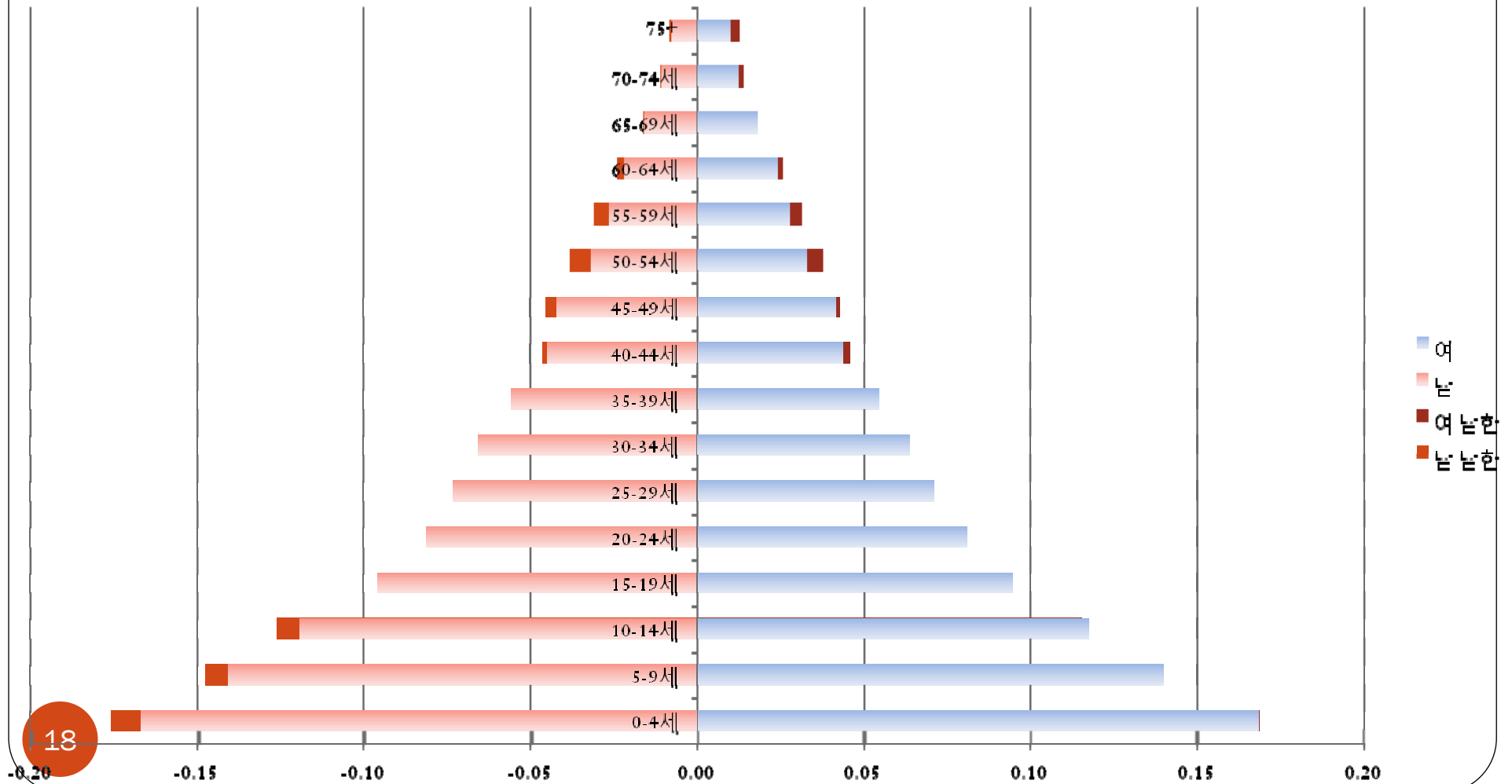
주민등록과 조사

- 인구조사는 인민반에서 다 한다. 내가 살던 인민반이 260반까지 구에 있었다. 한 인민반은 보통 20세대. 가족 수는 한집에 4명 정도. 이주. 사망은 녀맹위원장이고, 인민반장은 명절 때 나오는 공급, 숙박검열을 한다. 숙박검열은 적색분자 탐문한다면서, 정편군, 함주군 군처럼 다르면 있어야 갈 수가 있다. 만약 언니가 동생 동네에 가면 신고를 해야 한다. 장사, 밀주, 등수등을 검사하는 것이다. 밤 12시 이후에 인민반장이다라고 문 두드려 수색한다. 이주 관련 사람 관리는 녀맹위원장이 한다. 달아나고 노숙자 하는 것은 사상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녀맹위원장이 해야 한다. 못 잡아오면 계속 위로부터 욕먹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야 한다. 보고 안 할 수는 없다. 계속 회의를 하고 총화하는데 안 할 수 없다. 맘대로 다른 데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보고 안 할 수 없다. 두개 인민반에 녀맹위원장 하나. 인민반 하나에 인민반장이 하나. 만약 행불자가 있으면 상급에 보고한다. 상급에서도 어찌지 못하니까 가서 데려오라고 한다. 데려 못 온다. 통행증을 떼서 맘대로 형식상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못 잡아온다. 함경북도 95년도부터 달아났는데 남도는 96년도부터 달아나기 시작해서 97년도가 가장 심했다. 한 3,4년 있다가 잡혀 온 사람, 죽었다고 소식이 들리는 사람, 다른 데서 산다는 사람 등등이 소식이 들린다. 달아났다가 보다 많이 죽었다. 사망자 신고는 한다. 탈북했는데 죽은 걸로 만드는데 경우도 있다. 그것은 열 명 중 두 명 정도. 죽었는거나 한국에 안착하면 모르는데, 만약 다시 붙잡히는 경우에는 신고하는 사람이 굉장히 위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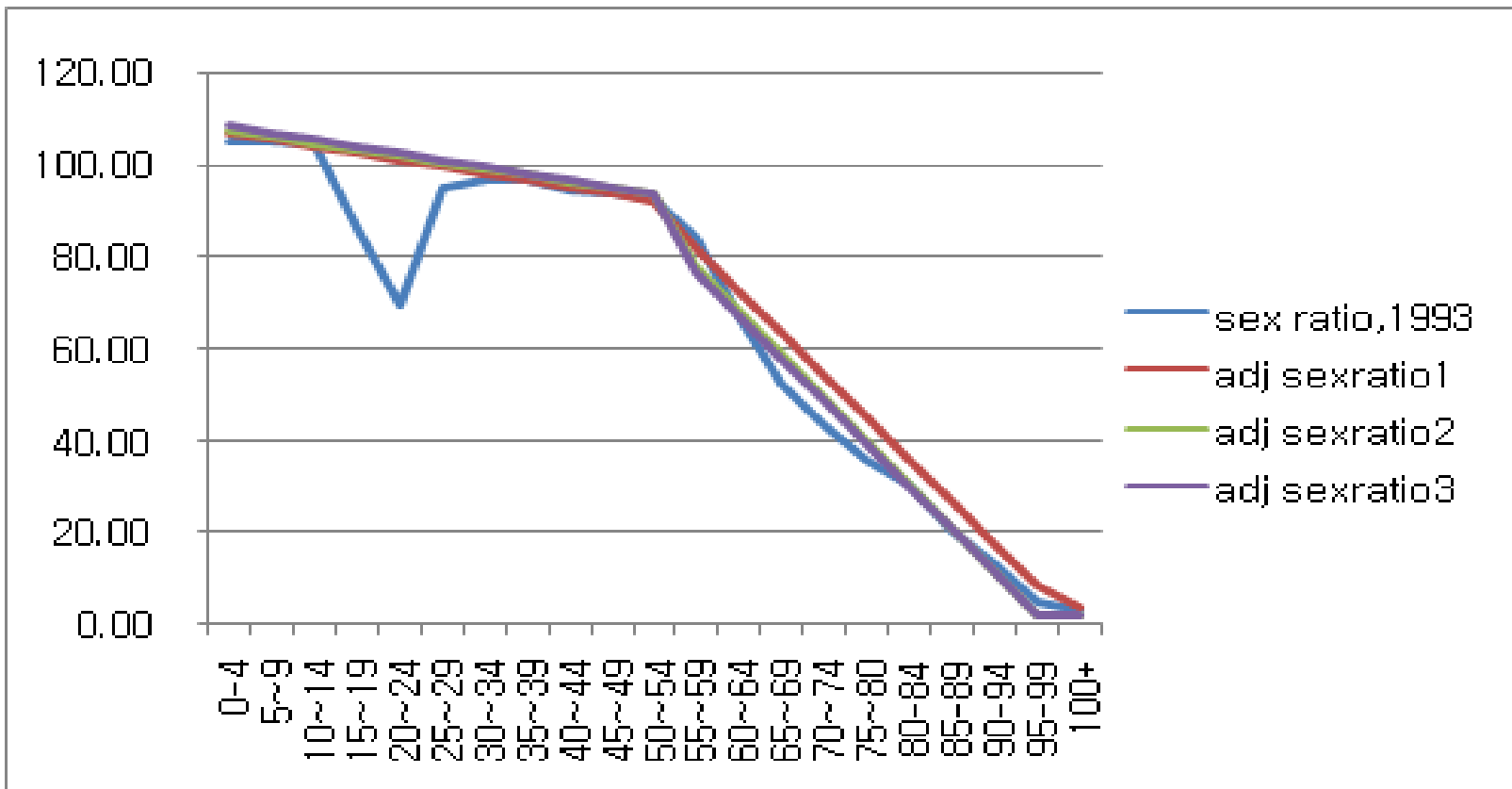
1944-1993년 까지의 북한인구

기준인구, 1944년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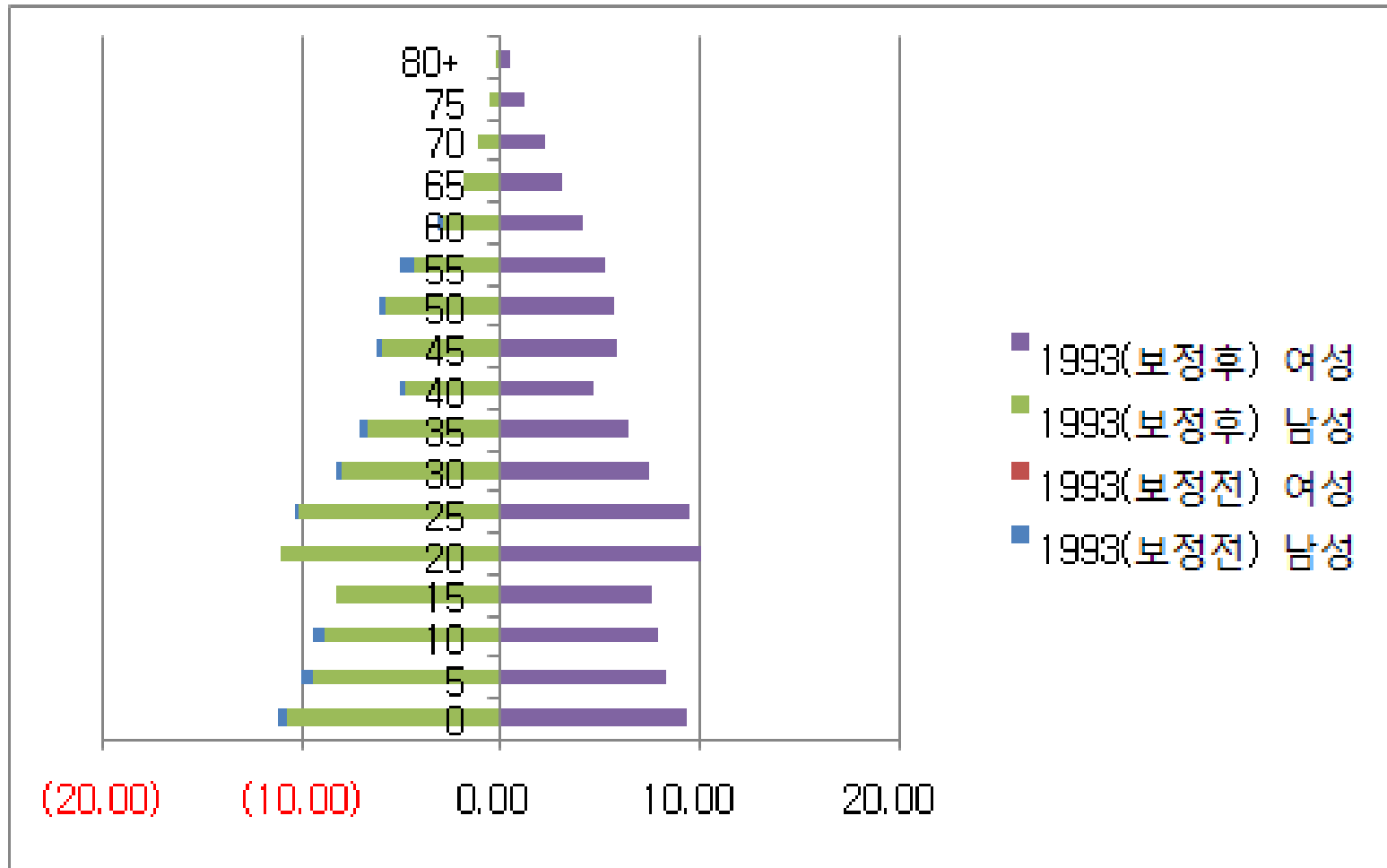
남북한 성 연령 구조, 1944



기준인구, 1993년 인구; 연령구조와 성비의 보정



인구보정 전후 연령구조



1944-1949년 인구 변동

(표) 남북한 인구변동의 효과, 1944-19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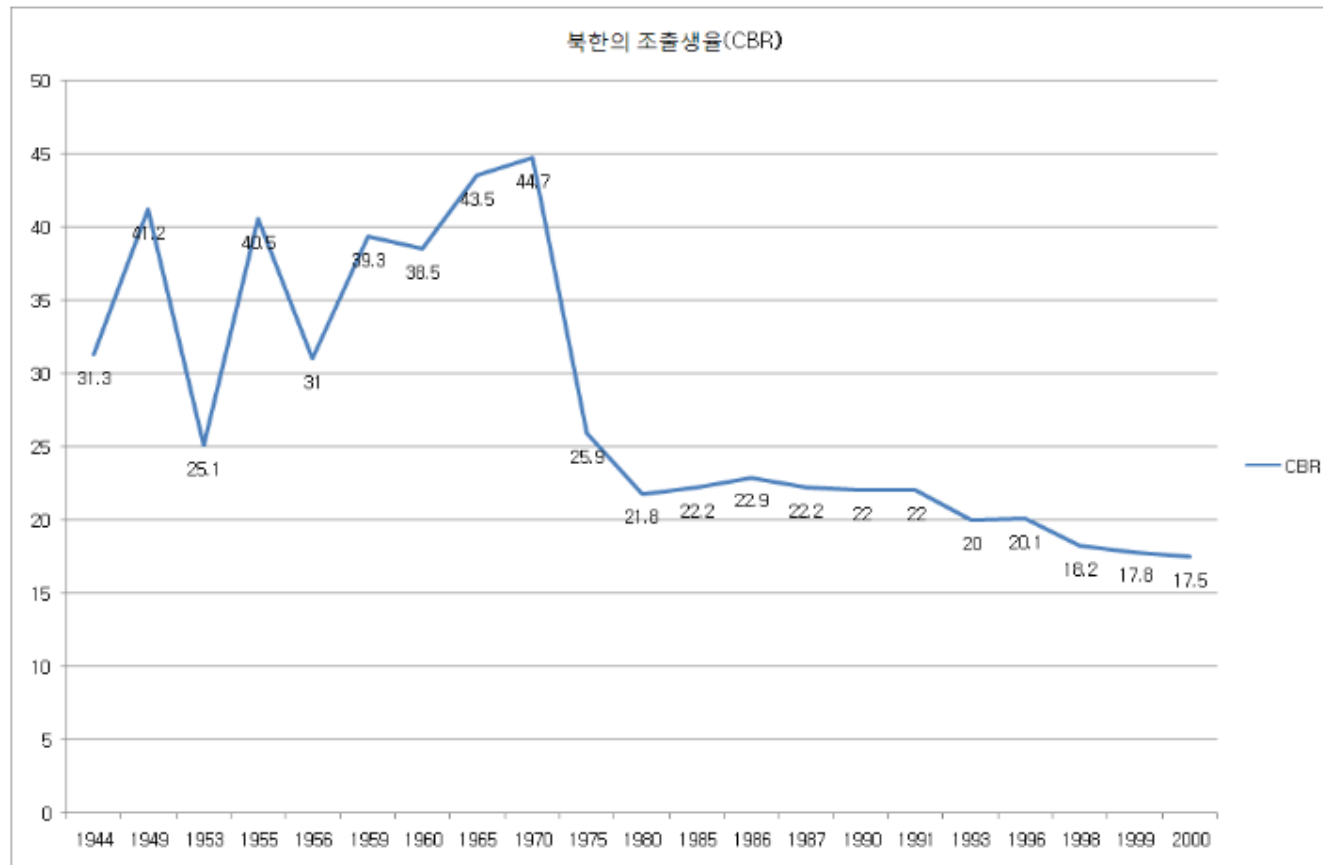
| | | 남한 | | | 북한 | | |
|-------------------|--------|----------|---------|----------|---------|---------|---------|
| 인구변동효과, 1944-1949 | | 남 | 여 | 계 | 남 | 여 | 계 |
| 총인구, 1949 | | 10188238 | 9978518 | 20166756 | 4782000 | 4840000 | 9622000 |
| 인구성장률 | 총증가율 | 0.051 | 0.042 | 0.047 | 0.006 | 0.013 | 0.0097 |
| | 자연증가율 | 0.018 | 0.018 | 0.018 | 0.018 | 0.019 | 0.018 |
| | 국제순이주율 | 0.034 | 0.025 | 0.029 | -0.012 | -0.006 | -0.009 |
| 성비 | | | | 1.02 | | | 0.99 |
| 총위연령 | 총변화 | 1,210 | 0,111 | 0,648 | -0,556 | 0,0460 | -0,257 |
| | 이동효과 | 1,012 | -0,027 | 0,510 | -0,576 | -0,122 | -0,3498 |
| 성비 | 총변화 | | 0,0437 | | | -0,0352 | |
| | 이동효과 | | 0,0437 | | | -0,0295 | |
| c ^b r | 총변화 | | 0,0228 | | | 0,0007 | |
| | 이동효과 | | 0,0006 | | | -0,0004 | |
| c ^d r | 총변화 | | -0,0014 | | | -0,0005 | |
| | 이동효과 | | -0,0005 | | | 0,00023 | |

1949-1954, 1954-1993년 인구 성장

출산, 출생률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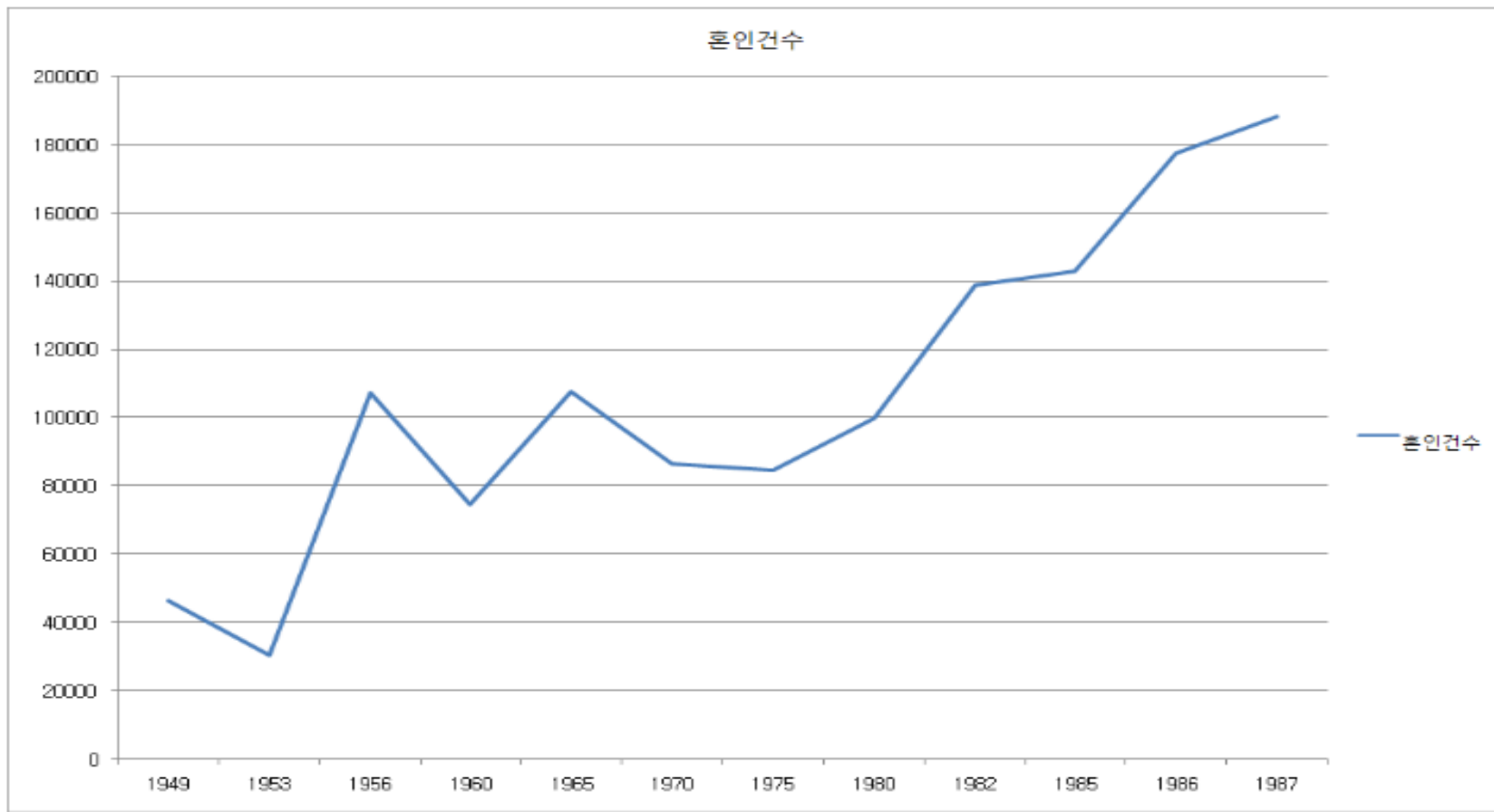
출산률 분석

<그림 7> 북한의 발표한 조출생율(CBR)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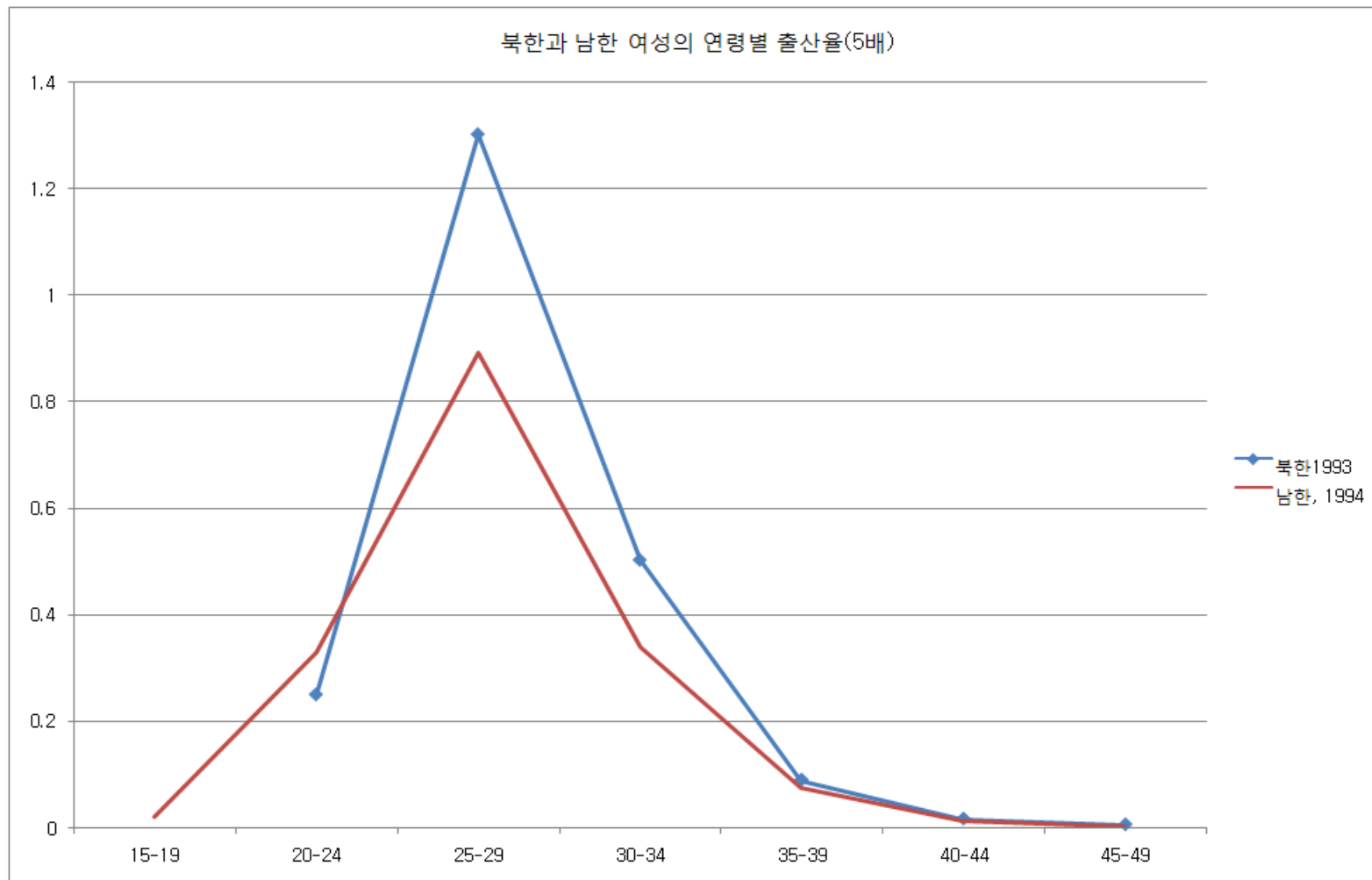


출산률 분석

<그림 8> 북한이 발표한 혼인건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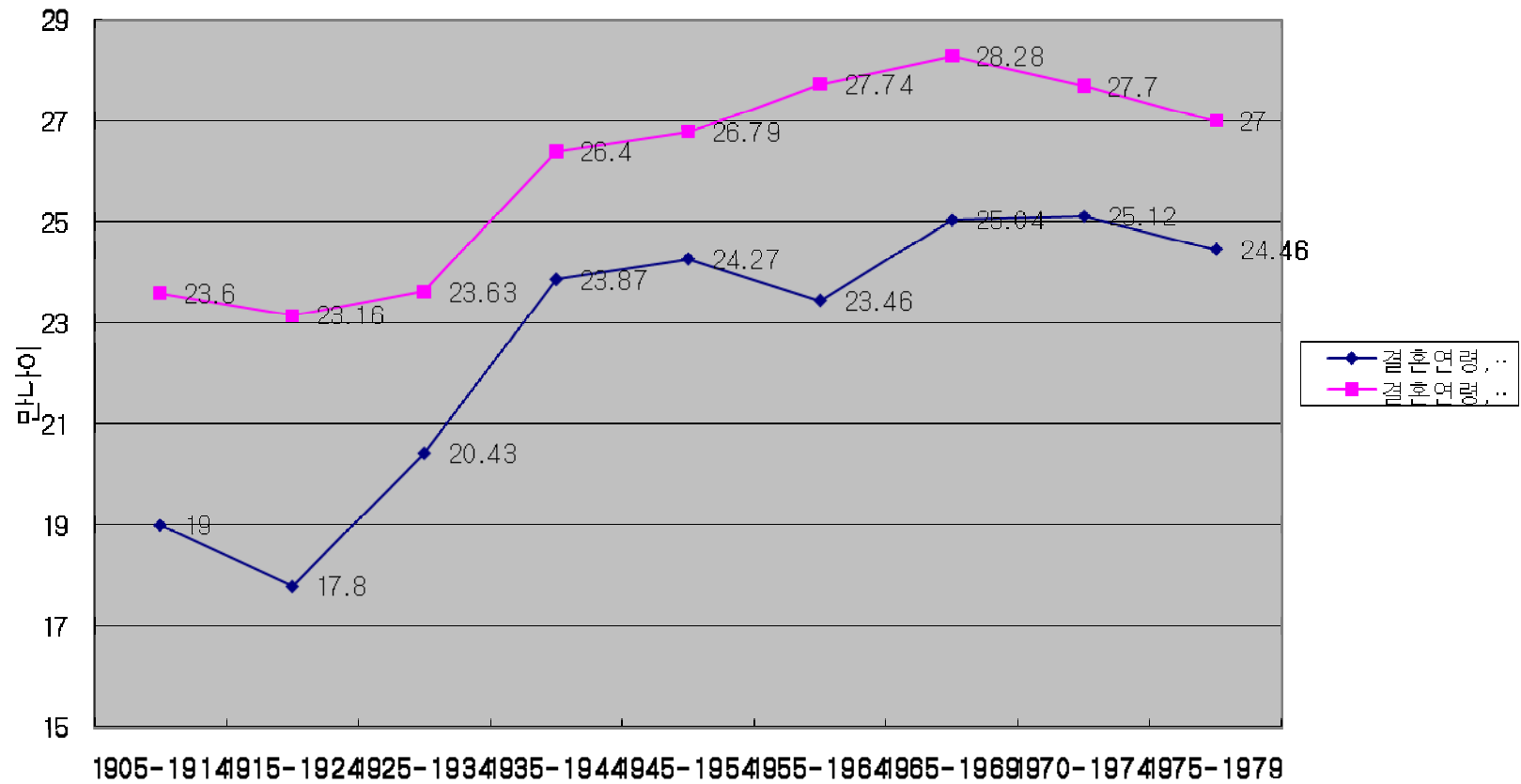


출산률 분석



새터민의 가족분석

출생연도별 결혼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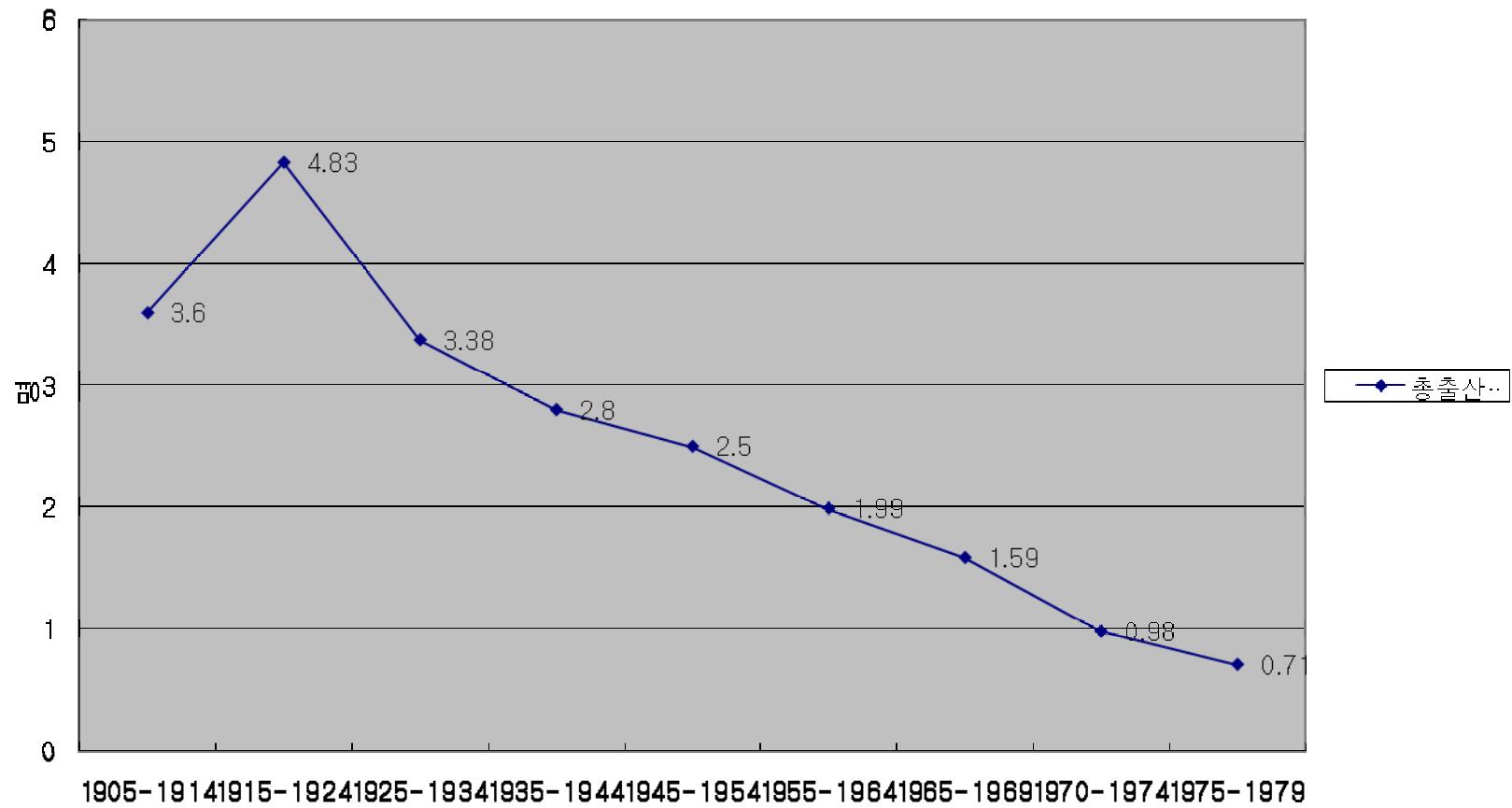
새터민의 가족분석

<표 11> 연령별 미혼율과 SMAM

| 연령 | 출생연도 | 미혼율,여 | 미혼율,남 |
|-------|-----------|--------|--------|
| 15-19 | 1988-1992 | 0.8667 | 1 |
| 20-24 | 1983-1987 | 0.913 | 0.9744 |
| 25-29 | 1978-1982 | 0.525 | 0.806 |
| 30-34 | 1973-1977 | 0.2995 | 0.3786 |
| 35-39 | 1968-1972 | 0.1584 | 0.1343 |
| 40-44 | 1963-1967 | 0.0891 | 0.1111 |
| 45-49 | 1958-1962 | 0.0714 | 0.0476 |
| 50-54 | 1953-1957 | 0.026 | 0.0656 |
| 55+ | -1952 | 0.047 | 0.0342 |
| SMAM | | 24.79 | 29.09 |

새터민의 가족분석

모의출생연도별 총출산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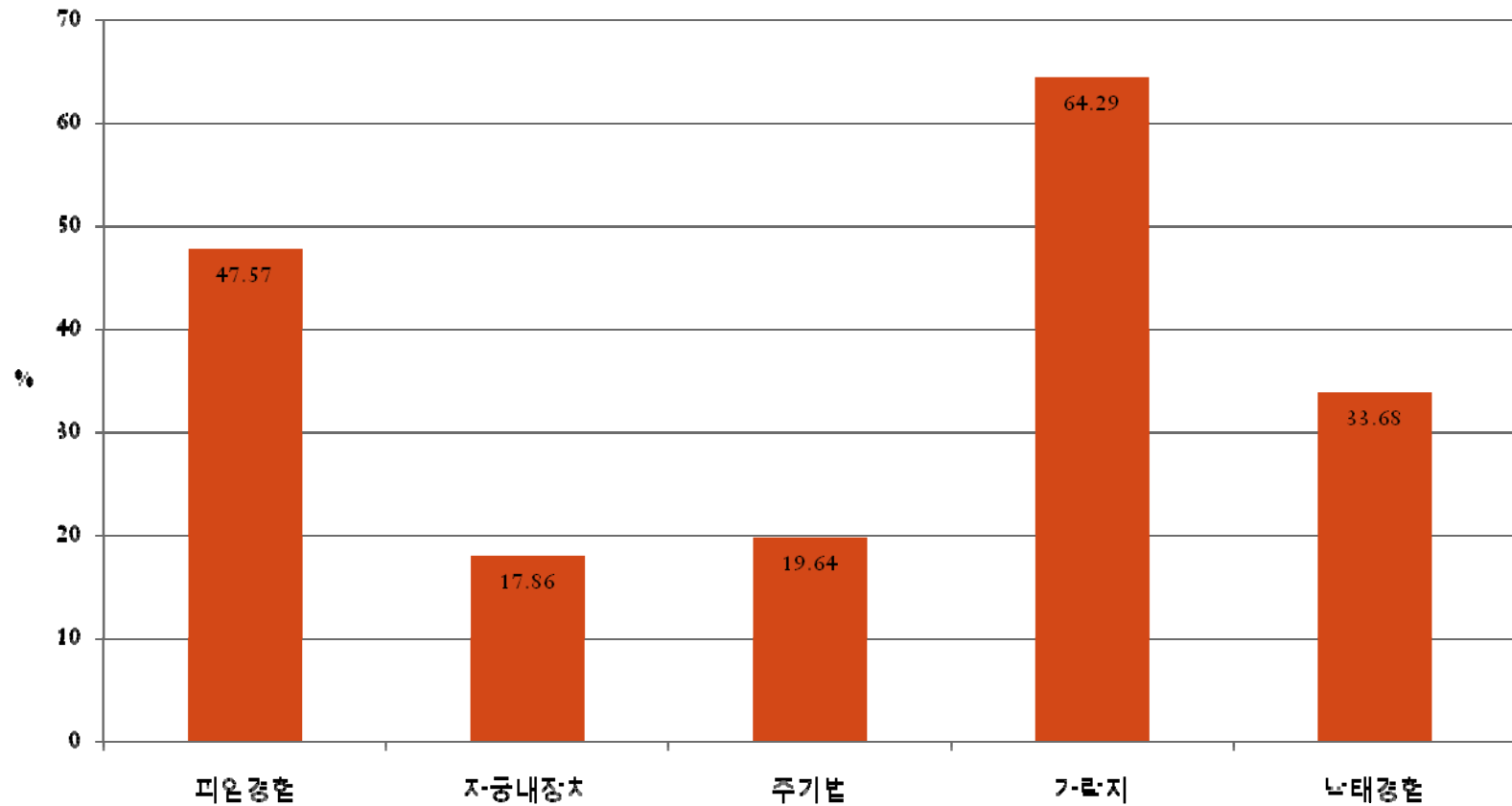
출산률 변화 요인

<표 12> 새터민 가족의 결혼, 출산연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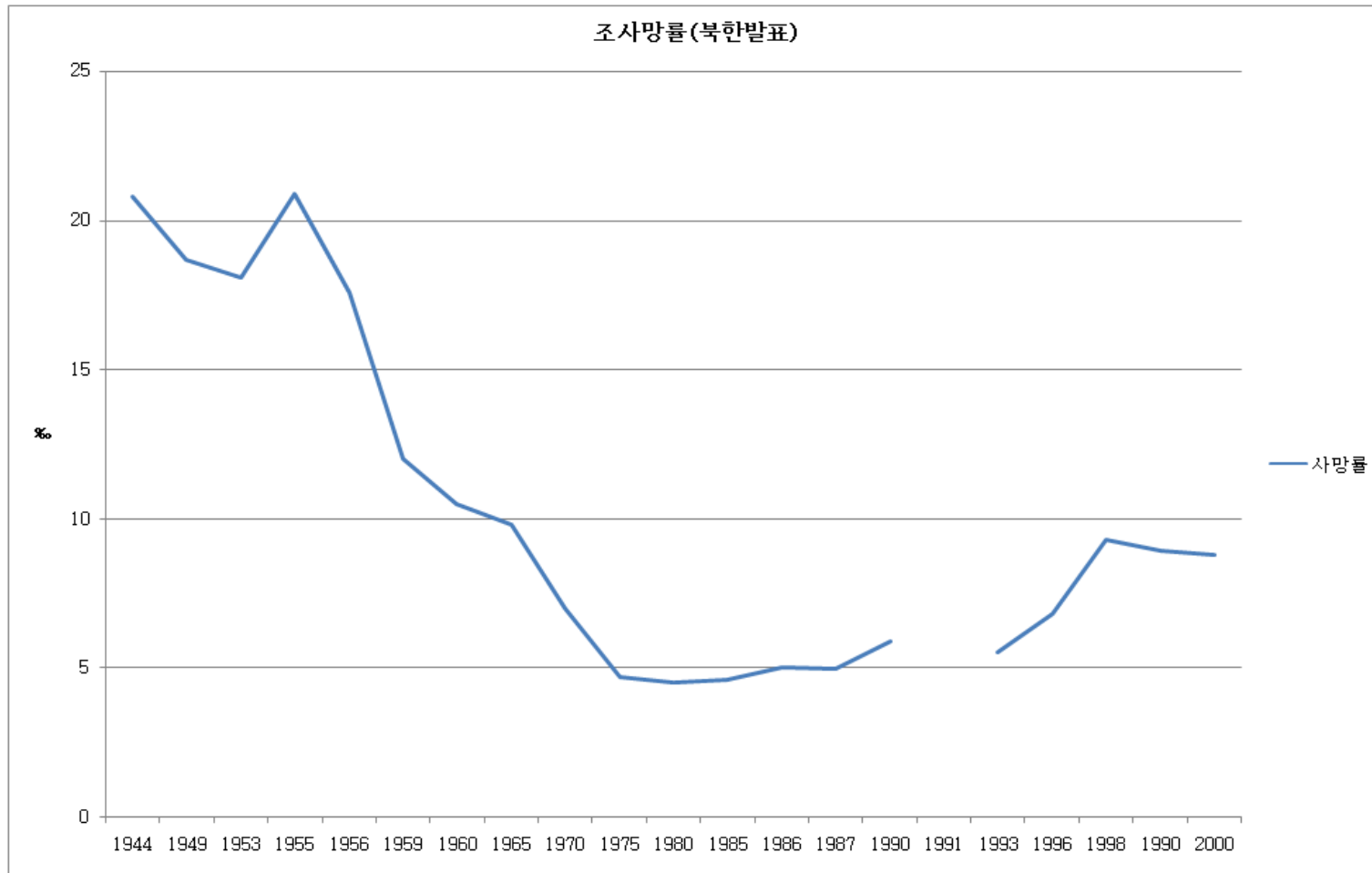
| 결혼/출산 시기 ↓ | 결혼연령 여 ↓ | 결혼연령 남 ↓ | 첫아이출 산연령 ↓ | 출산간격 ↓ | 총출산아 ↓ |
|---------------|--------------|--------------|---------------|--------|--------|
| 1950년대 ↓ | 20.4 ↓ | 23.6 ↓ | 24.8 ↓ | 3.0 ↓ | 3.4 ↓ |
| 1960년대 ↓ | 23.9 ↓ | 26.4 ↓ | 25.8 ↓ | 2.9 ↓ | 2.8 ↓ |
| 1970년대 ↓ | 24.3 ↓ | 26.8 ↓ | 24.6 ↓ | 2.4 ↓ | 2.5 ↓ |
| 1980년대 ↓ | 23.5 ↓ | 27.7 ↓ | 22.9 ↓ | 2.3 ↓ | 2.0 ↓ |
| 1990년대 ↓ | 25.1 ↓ | 28.0 ↓ | 26.1 ↓ | 1.7 ↓ | 1.6+ ↓ |
| 2000년대 ↓ | 24.4(24.8) ↓ | 27.1(29.0) ↓ | - ↓ | ↓ | ↓ |

출산률 변화 요인

새터민여성의 북한에서의 피임,유산율



사망률 분석



사망률 자료의 보정

- 발표된 사망률이 과소집계된 개연성; 신장, 연령구조, 영유아 사망률 패턴
- 사망률 수준의 추정- 지역생명표의 19-21수준(west model), 권태환/김태헌이 추정한 남한생명표 1975-1980년 수준. 이 수준에서 여아의 기대여명은 65세에서 70세 수준
- 생명표의 보정 -남성의 높은 사망률을 고려, 55세 이후 연령에서 발표한 자료의 사망률 수준을 적용함.

북한의 잠정적 사망률 수준, Lx

| age | 사망률수준 | | | | | |
|-------|-----------|----------|----------|----------|----------|----------|
| | Lx,m19 | Lx,f19 | Lx,m20 | Lx,f20 | Lx,m21 | Lx,f21 |
| 0 | 95059.48 | 96072.7 | 96074.26 | 96826.18 | 96775.48 | 97569.52 |
| 1-4 | 369599.24 | 375209.3 | 375768.4 | 380579.5 | 381104.3 | 385613.2 |
| 5-9 | 456495 | 464052.5 | 465275 | 472262.5 | 473542.5 | 479812.5 |
| 10-14 | 453217.5 | 461182.5 | 462632.5 | 470125 | 471490 | 478332.5 |
| 15-19 | 449492.5 | 458025 | 459512.5 | 467705 | 468962.5 | 476617.5 |
| 20-24 | 443950 | 453565 | 454797.5 | 464182.5 | 465095 | 474055 |
| 25-29 | 437375 | 448045 | 449237.5 | 459742.5 | 460565 | 470732.5 |
| 30-34 | 430300 | 441670 | 443290 | 454542.5 | 455727.5 | 466762.5 |
| 35-39 | 422032.5 | 434227.5 | 436285 | 448347.5 | 449957.5 | 461895 |
| 40-44 | 411537.5 | 425265 | 427187.5 | 440642.5 | 442225 | 455532.5 |
| 45-49 | 397395 | 413937.5 | 414465 | 430495 | 430925 | 446675 |
| 50-54 | 377737.5 | 398742.5 | 396142.5 | 416460 | 414005 | 433950 |
| 55-59 | 350347.5 | 377907.5 | 369792.5 | 396785 | 388867.5 | 415645 |
| 60-64 | 312849.5 | 348615 | 330213 | 368595 | 347247 | 388845 |
| 65-69 | 256526.2 | 307190 | 270764 | 327785 | 284731 | 349020 |
| 70-74 | 188114.8 | 269500 | 198556 | 287569 | 208798 | 306198 |
| 75-79 | 116613.9 | 210631 | 123086 | 224753 | 129435 | 239313 |
| 80-84 | 55313.24 | 136643 | 158383.2 | 145804 | 61394.8 | 155250 |
| 85-89 | 16096.15 | 68220.1 | 16989.5 | 72793.8 | 17865.9 | 77509.6 |
| 90-94 | 305.8269 | 22925.7 | 322.801 | 24462.8 | 339.452 | 26047.5 |
| 95+ | 0 | 3667.54 | 0 | 3913.43 | 0 | 4166.95 |
| e0 | 60.40 | 66.15 | 62.49 | 68.54 | 64.49 | 70.90 |

경제난 이후 인구 변동

지역 정주체계의 긴장과 유동인구

<표 5> 공장 가동이 중단된 시기

(단위: %)

| 지역 | 현재 가동중 | 1980년 대 | 1990~ 1991년 | 1992~ 1993년 | 1994~ 1995년 | 1996~ 1997년 | 1998~ 1999년 | 2000년 이후 | 전체 |
|------------|-----------|------------|----------------|----------------|----------------|----------------|----------------|-------------|-------------------|
| 강원도 | 50.0 | 0 | 0 | 0 | 50.0 | 0 | 0 | 0 | 100.00 (N=2) |
| 양강도 자강도 | 80.0 | 0 | 0 | 0 | 0 | 20.0 | 0 | 0 | 100.00 (N=5) |
| 평안도 | 29.4 | 5.9 | 0 | 17.6 | 29.4 | 11.8 | 5.9 | 0 | 100.00 (N=17) |
| 함경도 | 32.0 | 1.3 | 8.0 | 13.8 | 18.7 | 14.1 | 5.8 | 5.3 | 100.00 (N=225) |
| 황해도 | 16.7 | 0 | 50.0 | 33.3 | 0 | 0 | 0 | 0 | 100.00 (N=6) |
| 전체 | 32.6 | 1.6 | 8.6 | 14.1 | 18.8 | 14.5 | 5.5 | 4.7 | 100.00 (N=225) |

출처: “2007 새터민 조사”

<표 6> 광산가동이 중단된 시기

(단위: %)

| 지역 | 현재 가동중 | 1993년 이전 | 1994~ 1995년 | 1996~ 1997년 | 1998~ 1999년 | 2000년 이후 | 전체 |
|-------|-----------|-------------|----------------|----------------|----------------|-------------|-------------------|
| 양·자강도 | 100.00 | 0 | 0 | 0 | 0 | 0 | 100.00 (N=4) |
| 평안도 | 71.4 | 14.3 | 0 | 0 | 14.3 | 0 | 100.00 (N=7) |
| 함경도 | 43.7 | 21.0 | 13.7 | 8.4 | 4.2 | 8.4 | 100.00 (N=119) |
| 황해도 | 25.0 | 75.0 | 0 | 0 | 0 | 0 | 100.00 (N=4) |
| 전체 | 46.3 | 21.6 | 11.2 | 7.5 | 5.9 | 7.5 | 100.00 (N=134) |

출처: “2007 새터민 조사”

<표 7> 배급이 끊긴 시기

(단위: %)

| 지역 | 1980~ 1984년 | 1985~ 1989년 | 1990~ 1994년 | 1995~ 1999년 | 2000년 | 현재 | 전체 |
|--------|----------------|----------------|----------------|----------------|-------|------|-------------------|
| 강원도 | 0.00 | 0.00 | 20.00 | 80.00 | 0.00 | 0.00 | 100.00 (N=5) |
| 양강·자강도 | 14.29 | 14.29 | 28.57 | 42.86 | 0.00 | 0.00 | 100.00 (N=7) |
| 평안도 | 0.00 | 0.00 | 57.89 | 36.84 | 5.26 | 0.00 | 100.00 (N=19) |
| 함경도 | 0.74 | 2.95 | 50.92 | 45.39 | 0.00 | 0.00 | 100.00 (N=271) |
| 황해도 | 0.00 | 0.00 | 57.14 | 42.86 | 0.00 | 0.00 | 100.00 (N=7) |
| 전체 | 0.97 | 2.91 | 50.49 | 45.31 | 0.32 | 0 | 100.00 (N=309) |

출처: “2007 새터민 조사”

T

지역 정주체계의 긴장과 유동인구

- ...자꾸 군대들이 그런 건설에 동원되니까 군대를 안 가려 한 대요. 건설을 하다가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사례 1).
- ...식량난 때 남자들이 더 많이 죽었어요. 군대가서 대다수가 사망통지서가 오던데요...군대가서 사망률이 높으니까 돈 있는 부모들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서 아들을 군대에 안 보내요, 농촌 쪽에 사람들은 군대에 가지만 힘이 있는 집은 자식들을 안 보내요(사례 3).

- 북한은 원래 이혼이라는 것은 말도 못해요. 지금에 와서는 가끔씩 이혼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남편이 중국에 뺏겼든가 부인이 중국에 뺏겨서 3년 이상 안 돌아오면, 감옥에 가서 3년 이상 있을 경우, 정치범이 남편이 갔을 경우 여자가 나는 같이 안가겠다고 하면 이혼해요(사례 7).
- 이혼은 힘들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요즘은 돈이면 뭐든지 해결됩니다(사례 9).
- 이혼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 많이 했어요. 그 때 재판소장이 우리 집에서 하던 소리가 제가 들은 기억에 의하면 이혼률이 44%라 했어요. 미국보다 높다 했어요(사례 14).
- 정확하게 이혼은. 그, 법원에 가서 이혼을 못했어요. 제가 중국에 있을때, 근데 남편이 이혼했다 하더라고...(사례 15).

- ...북한은 남자가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집에서 애를 보고 일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시 않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일하지 않으면 북한에서는 잡아갑니다. 그래서 남자가 직장에 나가 일 하면은 월급을 타고 애 와이프 아이들 둘 쌀표를 다 받아옵니다. 그 쌀통장을 들여놓으면 와이프는 배급받아옵니다. 그런데 경제가 파탄이 나면, 여자가 집에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니, 자기라도 나가서 쌀 구하러 갑니다. 그리고 여자의 이동에 대한 통제가 약합니다. 하지만 남자는 기본 노력으로 보고, 직장에 안 나오거나 돌아다니면 조사 나오기 때문에 못갑니다. 쌀 구하기 위해 여자들의 행동반경이 넓어진 것입니다 (사례 8).

- 증명서는 돈 500원 주니까 증명서를 해주더라구요. 이 증명서를 가지고 청진까지 왔어요. 그래서 2003년 1월 달에 청진 와가지고 청진에서 다시 무산까지 들어와서 무산에서 청진 수남장마당이라는데 들어갔어요(사례 8)

- 1998년에 중국에 들어와서...조선족 집에서 1주일 정도 지냈어요...그런데 그 집에서 나를 팔려고 했는데 팔리지 않아서...연길에 와서 친척 옆집 도움을 받고 하얼빈으로 갔어요...2000년에 한국에 입국했어요(사례 2).
- 1997년에 중국 상하라는 곳에 조선족 집에 들어갔는데...그 후에 친척 소개로 도시 쪽에 시집을 갔어요...조선족과 결혼하여 4년 농사를 짓고 광주 태국을 통해 한국에 입국했어요(사례 1).
- 중국 훈춘을 통해 탈북 했는데 일주일 후에 잡혔어요. 북한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고...그 뒤 20여일 후 다시 탈북을 하여 훈춘에서 거주하다 연길로 이동한 다음 또 잡혔어요...그랬다가 2004년에 다시 탈북을 하여 몽골을 통해 한국에 입국했어요(사례 15).
- 화룡시 주성진을 통해 탈북을 하여...연길에서 조선족 주인이 꾸리는 “오○○다방”에서 일하다...청도에 가서 한국 사장이 책임진 한중합작단추공장에 갔어요...위해에서 조선족을 통해 교회를 다니다가...탈북 위해 한국 목사를 만나러 장춘으로 갔어요...그리고 곤명으로 갔다가 중국 국경을 넘어서 미얀마로 가서 수용소에서 2달 감금되었고...태국을 통해 한국에 입국했어요(사례 4).

<표9> 탈북자 입국 현황

(단위:명)

| 구분 | '89 | '93 | '98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합계 |
|--------------|-----|-----|-----|-------|-------|-------|-------|-------|-------|-------|-------|--------|
| 남(명) | 564 | 32 | 235 | 564 | 513 | 468 | 625 | 422 | 509 | 570 | 274 | 4,776 |
| 여(명) | 43 | 2 | 71 | 479 | 625 | 813 | 1,269 | 961 | 1,509 | 1,974 | 993 | 8,739 |
| 합계(명) | 607 | 34 | 306 | 1,043 | 1,138 | 1,281 | 1,894 | 1,383 | 2,018 | 2,544 | 1,267 | 13,515 |
| 비고 (여성비율) | 7% | 6% | 23% | 46% | 55% | 63% | 67% | 69% | 75% | 78% | 78% | 65% |

출처: 통일부 인도협력국, blog.naver.com/unicul, 북한이탈주민현황(08.4월말 현재) 참조

<표 11> 연령별 탈북시기 분포 및 시기별 탈북시 평균연령

(단위: %)

| 탈북시 연령 | 1995년 이전 | 1995~ 1996 | 1997~ 1998 | 1999~ 2000 | 2001~ 2002 | 2003~ 2004 | 2005~ 2006 | 2006년 이후 | 전체 |
|-----------------|---------------|----------------|----------------|----------------|----------------|----------------|----------------|---------------|-------------------|
| 20세 미만 | 1.79 | 7.14 | 28.57 | 26.79 | 12.50 | 16.07 | 7.14 | 0.00 | 100.00 (N=56) |
| 20-29세 | 0.00 | 1.23 | 33.74 | 26.38 | 12.27 | 12.27 | 14.11 | 0.00 | 100.00 (N=163) |
| 30-39세 | 1.02 | 4.08 | 12.24 | 12.24 | 17.35 | 24.49 | 27.55 | 1.02 | 100.00 (N=98) |
| 40-49세 | 0.00 | 0.00 | 24.00 | 16.00 | 16.00 | 8.00 | 32.00 | 4.00 | 100.00 (N=25) |
| 50세 이상 | 0.00 | 0.00 | 16.67 | 33.33 | 0.00 | 33.33 | 16.67 | 0.00 | 100.00 (N=6) |
| 전체 | 0.57 | 2.87 | 25.86 | 21.84 | 13.79 | 16.37 | 18.10 | 0.57 | 100.00 (N=348) |
| 평균연령 (단위: 세) | 21.5 (N=2) | 24.8 (N=10) | 25.8 (N=90) | 26.6 (N=76) | 28.4 (N=48) | 28.6 (N=57) | 31.2 (N=63) | 40.5 (N=2) | 27.8 (N=348) |

<표 12> 남녀별 결혼(초혼) 지역

(단위: %)

| 성별 | 북한 | 남한 | 중국 | 기타 | 전체 |
|----|-------|------|-------|------|-------------------|
| 남 | 87.72 | 8.77 | 3.51 | 0 | 100.00 (N=57) |
| 여 | 68.15 | 9.63 | 20.74 | 1.48 | 100.00 (N=135) |
| 전체 | 73.96 | 9.38 | 15.63 | 1.04 | 100.00 (N=192) |

·처: "2007년 새터민 조사"

경제난 이후 사망률 변화

- 1990년대 중후반 경제난의 영향 - 전반적 사망률 증가, 모성과 아동의 영양 결핍, 급성전염병, 급성소화기 장애, 건강/영양 위험상황에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 개입의 어려움 - 사망률 상승을 초래한 원인
- 경제조치, 외부의 의료, 영양 지원 - 사망률이 개선되는 중
- 그렇지만 충분한 정도의 개선이 아니라는 진단들 - 여전히 일반주민의 건강, 영양상태가 좋지 않음. 모성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아이의 발육저하, 저체중, 영양실조율이 높음
- 기근의 장기적 영향을 우려하는 논의들 - 경제난 당시 영양결핍을 겪은 아동들이 청소년기 성장에 심각한 저해를 경험하고, 장년기 건강수준에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박순영 외, 2007)
- 지역별, 계층별 차이에 대한 논의들 - 좋은 벗들, w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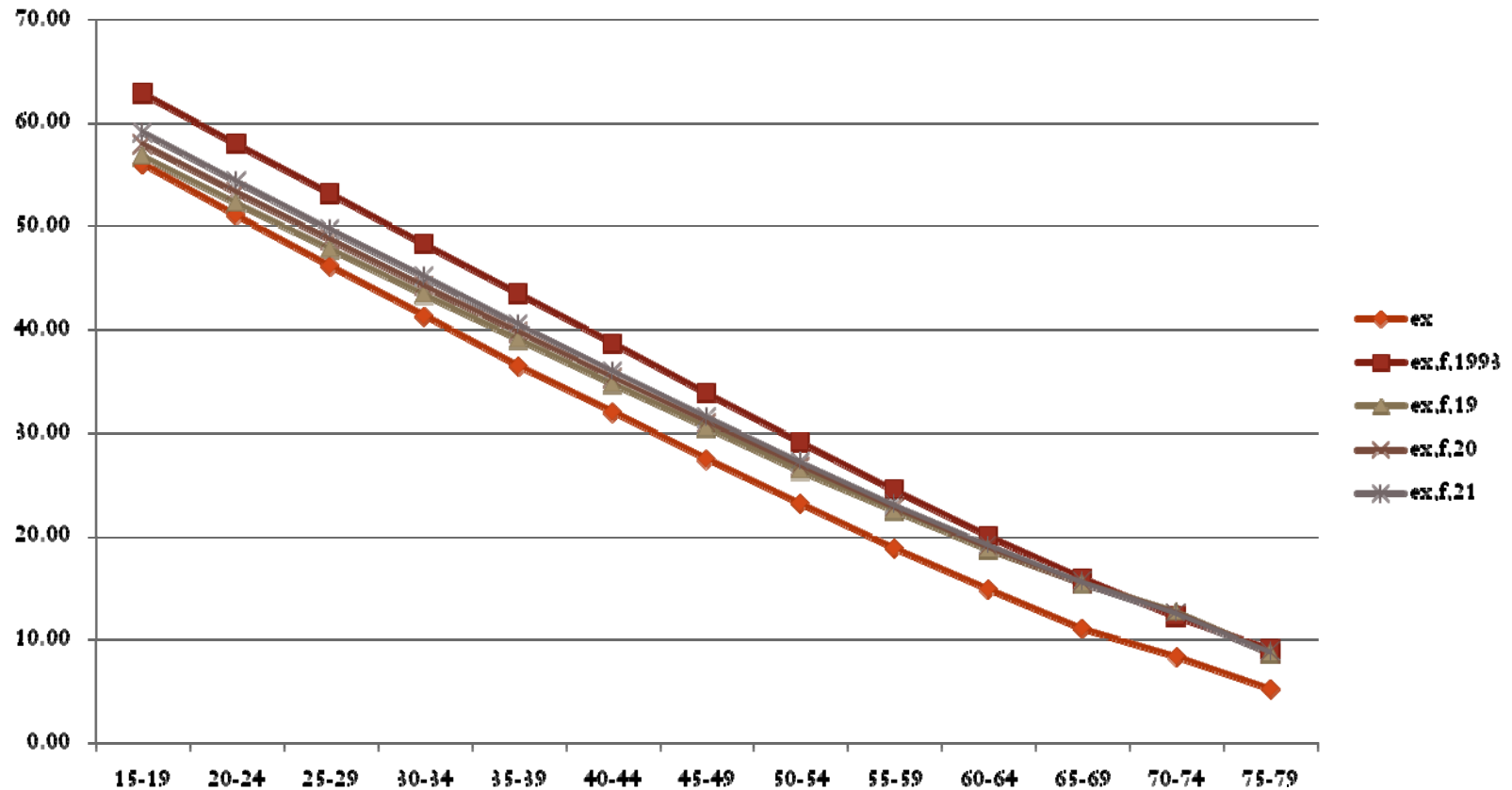
경제난 이후 사망률 변화 추정

| | 1993 | 1996 | 1998 | 1999 | 2000 | 2003 | 2008 |
|----------|-------|-------|-------|-------|-------|-------|-------|
| cdr 19 | 9.20 | | 10.03 | | | 10.70 | 11.54 |
| 20 | 8.30 | | 9.13 | | | 9.85 | 10.69 |
| 21 | 7.50 | | 8.29 | | | 9.04 | 9.89 |
| 발표수치 | 5.50 | 6.80 | 9.30 | 8.90 | 8.80 | | |
| 영아사망률 19 | 59.79 | | 56.03 | | | 59.00 | 59.79 |
| 20 | 47.40 | | 44.54 | | | 47.64 | 47.73 |
| 21 | 37.53 | | 35.36 | | | 37.90 | 38.04 |
| 발표수치 | 14.10 | 18.60 | 23.50 | 22.50 | 21.80 | | |
| 유아사망률 19 | 80.38 | | 73.03 | | | 80.40 | 78.99 |
| 20 | 62.58 | | 57.31 | | | 63.21 | 62.22 |
| 21 | 46.37 | | 42.92 | | | 47.14 | 46.66 |
| 발표수치 | 27.00 | 40.00 | 50.00 | 48.00 | | | |

주: 영아사망율은 0세 인구 천명당 0세 사망자의 비를 가리킴. 유아사망율은 0세 인구 천명당 1-4세 사망자비를 가리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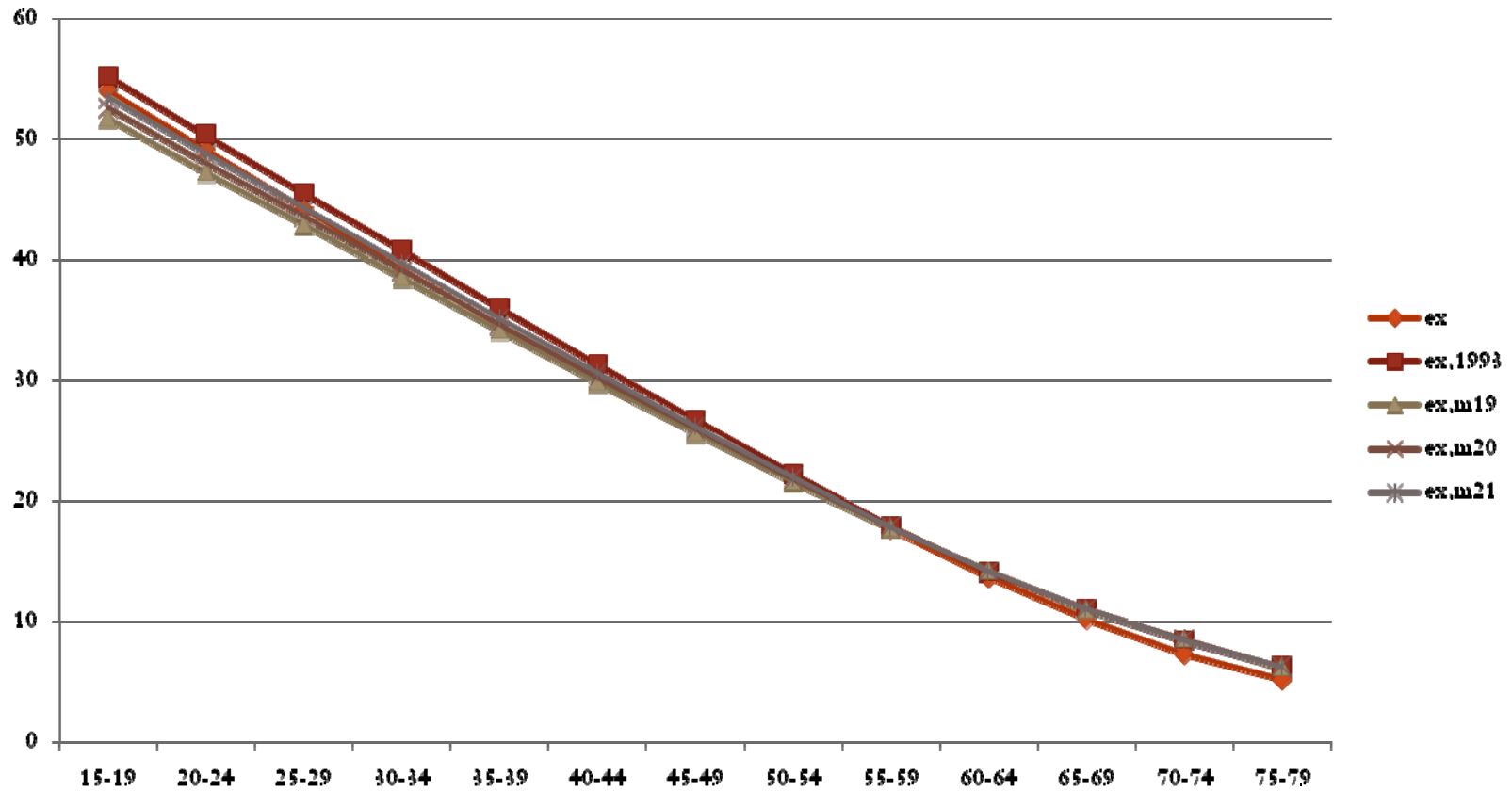
새터민 가족의 사망력 수준, 여성

북한 여성의 기대여명



새터민 가족의 사망력 수준, 남성

북한남성의 기대여명



인구추정

< 표 14 > 1993-2008년 인구

| 년도 | 연앙인구 | | | 발표수치 |
|------|----------|----------|----------|----------|
| 1993 | 21272406 | | | 21213000 |
| 1994 | | | | 21514000 |
| 1996 | | | | 22114000 |
| 1997 | | | | 22355000 |
| 1998 | 22393899 | 22490269 | 22582017 | 22554000 |
| 1999 | | | | 22754000 |
| 2000 | | | | 22963000 |
| 2001 | | | | 23149000 |
| 2003 | 23276701 | 23471884 | 23658578 | |
| 2004 | | | | 23612000 |
| 2008 | 23837774 | 24130134 | 24410762 | |

2008년 북한인구조사와 추정결과

| | 남 | 여 | 계 |
|-----------|----------|----------|----------|
| 2008 인구조사 | 11722403 | 12328815 | 24051218 |
| 추정1 | 11739577 | 12098197 | 23837774 |
| 추정2 | 11881816 | 12248318 | 24130134 |
| 추정2 | 12016684 | 12394078 | 24410762 |

인구추정

<표 15> 조사망률과 조사망률, 1993-2008

| 연도 | 조사망률 | 조사망률 | 조사망률 | 발표수치 | CDR | 조사망률 | 조사망률 | 발표수치 |
|------|-------|-------|-------|-------|-------|-------|------|------|
| 1993 | 20.00 | | | 20.00 | 9.20 | 8.30 | 7.50 | 5.50 |
| 1996 | | | | 20.10 | | | | 6.80 |
| 1998 | 19.99 | 19.96 | 19.93 | 18.20 | 10.03 | 9.13 | 8.29 | 9.30 |
| 1999 | | | | 17.80 | | | | 8.90 |
| 2000 | | | | 17.50 | | | | 8.80 |
| 2003 | 16.51 | 16.46 | 16.41 | | 10.70 | 9.85 | 9.04 | |
| 2008 | 15.49 | 15.41 | 15.33 | | 11.54 | 10.69 | 9.89 | |

감사합니다